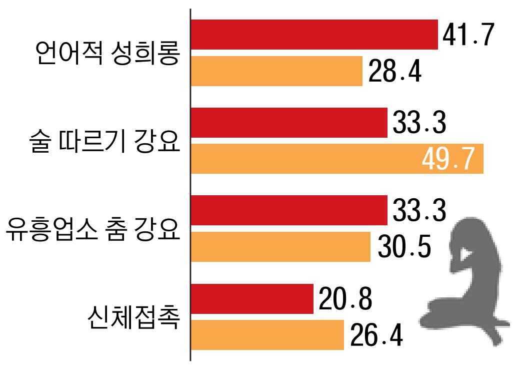
광주·전남 女교사 10명중 6명 “성희롱 당해봤다”

전교조 설문…가해자 대부분 관리자



광주·전남 여교사 10명 중 6명이 언어적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교사들은 ‘신안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도서벽지 근무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꼽았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여교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0.7%가 교직 생활 동안 성희롱과 성추행 등 넓은 의미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여교사의 성희롱과 성추행 경험 비율은 각각 62.5%와 63.5%로 조사됐다.

전교조는 ‘신안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지난 10∼12일 여교사 1758명(광주 24명, 전남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광주의 경우 ‘언어적 성희롱’(41.7%), ‘술 따르기나 마시기 강요’(33.3%), ‘유흥업소에서 춤 강요’(33.3%), ‘신체적 접촉’(20.8%)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술 따르기나 마시기 강요’가 49.7%로 가장 높았고, ‘유흥업소에서 춤 강요’(30.5%), ‘언어적 성희롱’(28.4%), ‘신체적 접촉’(26.4%) 순이었다.

가해자의 유형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서 광주지역 여교사들은 ‘학교관리자’(73.3%)와 ‘동료 교사’(53.5%), 전남지역 여교사들은 ‘동료 교사’(59.5%), ‘학교관리자’(58.7%), ‘학교에서 직책을 맡은 학부모’(18.3%), ‘학교 및 지역단체의 직책을 맡은 주민’(7.9%) 등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전남지역 여교사 대부분은 이 같은 원인이 ‘여교사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인식’(35.8%)과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유흥문화’(35.2%)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사회 문화’(62.5%)와 ‘가해자들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28%) 때문이라고 답했다.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우선 과제(복수 응답)로 전남지역 여교사들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80.4%)와 ‘도서벽지 근무 교사 처우 개선’(44.7%), ‘학교 관리자의 반성폭력 교육 의무화’(31.2%)를 꼽았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영산강에 토종 어류 방류 15일 나주 영산포 등대광장에서 열린 ‘영산강 환경사랑 띠 엮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토종어류인 동자개(일명 빠가사리) 방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행사는 영산강유역 자치단체, 시민 등이 한마음으로 영산강을 아끼고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관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건국대 교수 강의중 “5·18, 북한이 개입”

5·18재단 교수 사퇴 요구, 법적 조치 항의 서한

건국대학교 교양과목 교수가 강의 중 ‘5·18에 북한이 개입됐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과 연관된 노래다’, ‘지만원씨 책을 읽어야한다’고 지도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홍 교수의 5·18 왜곡발언은 수업을 듣는 학생의 제보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자회)는 “건국대 교양과목 ‘세계 속의 한국’을 가르치는 홍신애교수가 수업 중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표현을 상습적으로 했다”면서 “대학총장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5·18재단은 “강의 녹취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검증을 거쳐 취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5·18재단에 따르면 홍교수는 수업 중 수차례에 걸쳐 ‘북한이 5·18에 개입했다’는 주장했다. 5·18을 상징하는 노래이자 대표적인 민중가요인 ‘님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는 “북한과 관련된 노래”라고 발언했다. 나아가 홍교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만원씨의 저서를 학생들에게 추천하기도 했다. 지만원씨는 5·18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5·18에 참여한 광주전남 지역민을 상습적으로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로 그의 주장은 보수진영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5·18 재단은 서한을 통해 건국대 총장에게 홍교수의 사과와 사퇴, 총장 명의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달 안으로 홍교수의 책임있는 해명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은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시안으로, 홍 교수의 발언은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허위사실 유포로 결코 보호받거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교수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답변 드릴 말씀이 없다. 내용이 와전된 것 같다. 괜한 곡해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건국대 측은 “처음 듣는 말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섬 근무환경 개선 700억 요청

전남도교육청이 섬 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700억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섬지역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사 안전장치 설치 및 개·보수, 연립사택 증축비 등으로 70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열악한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는 만큼 조속한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방범창·CCTV 설치 등 관사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 4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는 한편, ▲지자체와 교육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통합관사(26세대) 신축비 43억원 ▲교직원들을 위한 연립관사 증축비 442억원 ▲관사 개축 사업비 105억원 ▲관사 개·보수비 37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는 16일 전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시·도교육청과 진행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 노후시설 안전등급 재조사 D등급 12곳 늘어

전남도가 각 시·군이 책정한 노후시설 안전등급을 재검증한 결과 구조적 결함이 의심되는 D등급 시설이 12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5일 “지난달 말까지 재난관리 5573개 시설물 중 준공 35년이 지난 A·B·C등급 242개 시설물에 대해 재검증에 나선 결과 이 가운데 12개 시설물이 D등급으로 재분류됐다”고 밝혔다.

재검증 242개 시설물 가운데 기존 안전등급을 유지한 A등급(안전시설) 18개, B등급(경미한 손상) 89개, C등급(보통 손상) 65개 등 172개소를 제외하고 58개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하향조정됐다. A등급에서 B등급이 9개, A등급에서 C등급이 8개, B등급에서 C등급이 41개 등이다. 특히 재검증에서 함평 원이문교, 장흥 덕촌1교 등 12개 시설물이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 지정을 받았다. D등급을 맞은 여수의 5층짜리 한화사택은 현재 통행이 금지돼 있으며, 올해 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중점관리시설(B·C등급)로 하향 조정된 시설은 안전등급을 변경한 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을, 재난위험시설(D등급)로 조정된 시설은 정밀안전진단 후 보수·보강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한편 이번에 재검증 대상 시설물은 교량 128개, 건축물 99개, 상하수도 7개, 육교 2개, 터널 등 기타 6개 등이다. 검증에는 전남도 안전관리자문단과 전남도, 시·군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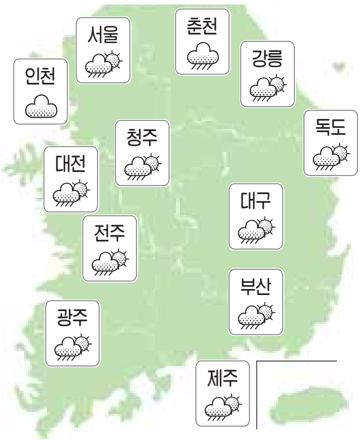
해뜸	05:18	달뜸	15:54
해짐	19:49	달짐	02:34

‘돌풍주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비온뒤갬	20/26	보 성	비온뒤갬	19/26
목 포	흐림	20/24	순 천	비온뒤갬	21/28
여 수	비온뒤갬	21/27	영 광	흐림	20/25
나 주	비온뒤갬	20/27	진 도	흐림	19/24
완 도	비온뒤갬	20/25	전 주	비온뒤갬	20/26
구 례	비온뒤갬	20/28	군 산	비온뒤갬	20/23
강 진	비온뒤갬	20/26	남 원	비온뒤갬	21/26
해 남	비온뒤갬	19/25	흑 산 도	흐림	18/22
장 성	비온뒤갬	19/25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	서∼북서	1.0∼2.0
	먼바다	남서∼서	1.5∼2.5	서∼북서	1.5∼2.5
남해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	서∼북서	1.0∼2.0
	먼바다(동)	남∼남서	1.5∼2.5	서∼북서	1.5∼2.5
	먼바다(서)	남서∼서	1.5∼2.5	서∼북서	1.5∼2.5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11:03	04:43
	00:00	16:52
여수	06:07	00:16
	19:06	12:18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23(목)
19/30	20/30	20/29	21/27	21/29	21/26	21/27

컨테이너박스에 살던 7식구에게 갑작스럽게 날아든 퇴거 통보
벼건조기가 작동되는 정미소 안의 컨테이너 박스. 이 곳이 바로 사랑이네 집입니다. 벼건조기로 인해 하얀 미세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며 호흡기질환을 달고 살던 사랑이네 가족. 냉방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엔 곰팡이와 싸우고 겨울엔 추위와 사투를 벌이지만, 그래도 7남매의 웃음과 행복이 피어나던 집이었습니다.

사랑이네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엄마, 아빠의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 그리고 남겨진 수천만원의 빚. 빚을 갚으려,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 만삭의 몸으로 사랑이 엄마는 아빠와 함께 밭에 나갑니다. 게다가 선천성 백내장을 가진 사랑이와 3도 화상을 입은 막내 3살 마음이의 치료까지 막막할 뿐입니다.

외부에 임시로 판넬을 덧대어 틈새 공간을 마련한 사랑이네 집
우리 여덟 가족은 살기 위해, 외삼촌네 집 마당에 임시 판넬로 5평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와 다를 바 없는 판넬 집은 집이라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콘크리트 바닥과 삐죽 튀어나온 빨간 벽돌에 3살 마음이가 언제든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동생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원자님,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보내주신 후원금은 사랑이네 주거신축비 및 생계비로 사용되며, 참여해주신 후원자님께 입주식에 초대합니다. 본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 사랑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랑이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정신 없는 엄마를 도와줍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척척 빨래를 개고, 식사시간이 되면 숟가락, 젓가락을 척척 놓습니다. 사랑이의 별명은 ‘신사임당’. 6살이지만 마음은 훌쩍 커버린 어른아이입니다.

◀후원및 자세한 사항은 코드를 찍어주세요

후원계좌 : 어린이재단/농협/301-00816148-1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문의. Tel. 061-274-0041 / 061-921-4397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68년 동안 국내·외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생존·보호·발달·권리옹호)를 수행 해 온 국내 최대의 아동복지전문기관입니다.